프라하의 제롬

이상규(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역사신학)

중세 하에서 교회개혁을 시도했던 인물 중 보헤미아 프라하의 제롬(Jerome of Prague, c. 1371-1416)은 평신도였으나 위대한 웅변가이자 토론가였다. 그도 로마교회의 개혁을 위해 싸웠던 인물이었으나 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따라서 그를 아는 이들도 많지 않다. 그는 얀 후스(Jonh Hus, 1372/1373-1415)의 제자이자 동년배로서 근친한 동료였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개혁자였다.

제롬은 1371년 경 프라하에서 출생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그도 로마교적 환경에서 성장했고 로마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1398년에는 프라하대학을 졸업했다. 이 학교에서 재학하는 동안 제롬은 위클리프를 알게 되었고, 교회 개혁의 이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프라하대학은 1348년 황제 카를 4세(재임기간: 1347-78)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알프스 이북 라인강 동쪽에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빈 대학(1365), 하이델베르크 대학(1368)과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다. 황제 카를 4세는 파리대학의 모델을 따라 교수 중심의 정통종교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대학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통치권위를 세우는 대학이 되기를 원했다. 따라서 북부지역의 명문대학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설립되기 30년 만에 보다 근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보헤미아 식 교육을 지향하

는 대학으로 변모되고 있었다.[1)]

보헤미아와 영국 지배층과의 선린관계로 1380년대부터 보헤미아에는 위클리프의 저서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특히 영국의 리차드 2세와 보헤미아 왕의 누이인 룩셈브르크의 앤(Ann)과의 혼인으로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가 빈번해 졌고, 보헤미아의 청년들이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하는 일이 빈번해 지자 위틀리프의 저서들이 보헤미아로 소개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라하 대학은 개혁사상을 전파하는 본거지였다. 이런 환경에서 제롬은 위클리프의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이다. 프라하 대학도 개혁 성향을 지닌 대학으로 변모되어, 대학에는 위클리프 지지파와 신성로마제국 지지자들 간에 갈등이 제기되었고, 친 체코파 혹은 반 체코파로 양분되기까지 했다. 제롬은 이런 지적 환경에서 수학했고, 이 대학으로 스며든 위클리프의 영향 하에서 개혁신앙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가 영향을 받은 얀 후스는 1396년부터 가르치고 있었는데, 얀 후스와의 접촉을 통해 제롬은 교회개혁의 이상을 갖게 된 것이다.

프라하 대학을 졸업한 제롬은 영국 옥스포드로 가서 일정 기간 공부하고 1401년 위클리프의 저작을 가지고 프라하로 돌아와 이를 보급하는 일에 몰두했다.[2)] 이것은 그가 반 로마교적인 개혁신앙을 깊이 수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 제롬은 파리 대학으로 옮겨가 문학 석사 학위를 얻고 그곳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제롬은 사상사적 혹은 신학적으로 볼 때 위클리프주의를 따르는 실제론자(Realist)였다. 이런 신학적 입장 때문에 파리 대학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었다. 파리 대학은 실재론이나 위클리프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제롬은 교회개혁자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의 신학사상은 위클리프– 후스를 잇는 개혁신앙이었다. 그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수한 복음적 진리에로 돌아와야 한

1) 이석우,『대학사』(한길사, 1998), 378.
2) Harold Brown(라은성 역),『이단과 정통』(그리심, 2001), 432.

다고 가르쳤다. 더 나아가 교회 토지를 공유화를 주장하고, 교회는 청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배의식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처럼 성찬식 때 신도에게도 떡과 함께 잔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찬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화체설을 신봉하고 있었다.[3)]

1407년에는 제롬이 민족주의-위클리프주의적인 신앙운동(Nationalist-Wycliffite campaign)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독일인이 주도적이었던 프라하 대학에서 체코인들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 때문에 제롬은 프라하의 대주교로부터 파문을 받았고, 1410년에는 헝거리의 시기스문트 궁정에서 행한 설교 때문에 해임되기도 했다. 개혁신앙은 언제나 문제였다.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도피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종교재판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이미 파문을 받았으므로 생존의 위기를 감지한 그는 이곳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이런 경험들이 제롬으로 하여금 더 철저하고 급진적인 개혁자로 변화시켜 주었다.

1412년에는 프라하로 돌아왔다. 이곳에서 제롬은 후스와 함께 유명한 공개 논쟁에 참여했다. 이 토론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법에 위배되는 교황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뒤 시가행렬을 이끌었다. 그는 친구이자 동료인 후스의 파문에 저항하고 면죄부 판매와 유골숭배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후스는 로마교의 신학은 물론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여 1412년 파문을 받았고, 성사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제롬은 후스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았고, 면죄부 판매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불의한 거짓으로 공표하였다. 이때의 시위는 면죄부 판매를 공인한 교황 요한네스 23세의 칙서를 불태우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신학과 의식, 관행이 성경에서 이탈한 것임을 확

3) J. D. Douglas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Zondervan, 1978), 529.

신하여 이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저항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1414년에 일어났다. 이 때 후스는 이단 혐의로 콘스탄츠 회의에 소환명령을 받았고, 황제는 여행의 안전을 보장했다. 그래서 후스는 10월 11일 크라코벡(Krakovec)을 떠나 20일 간의 여행을 거쳐 11월 3일 콘스탄츠에 도착했다. 제롬은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여행에 동행했다. 한 가지 이유뿐이었다. 후스를 지원하고 돕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이때 제롬은 체포의 위기를 겪어 콘스탄츠에서 도피했으나 개인의 힘은 미약했다. 그는 다시 체포되어 콘스탄츠로 호송되어 다시 1여년간 투옥되었다. 반면에 후스는 여행의 안전 약속을 보장 받지 못한 채 도미닉수도원 감옥에 6개월 간 투옥되었고, 콘스탄츠공의회에서 정죄되어 '이단의 괴수'(Hoeresiarcha)라는 누명을 안고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했다. 이때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때였으나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그도 다시 화형에 처해졌다.

황제 지기스문트(재임기간: 1410-1437)[4]는 제롬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기스문트는 룩셈부르크왕가에서 나온 마지막 황제로서 서유럽교회의 대분열기 황제였고 후스전쟁을 종식 시킨 왕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혁자들을 처단했던 왕이었다. 그가 교황 요한 23세에게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한 콘스탄츠 회의 소집을 설득했고, 아헨에서 독일 왕으로 대관식을 치른(1414. 11) 후 콘스탄츠로 가서 공의회에 참석했다. 지기스문트는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신변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고 그를 화형 당하게 했는데, 그가 이번에는 제롬을 화형에 처하도록 역할 했던 것이다. 옥중에서 고문을 당했던 제롬은 병까지 얻어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 심한 고문 때문에 한때 위클리프와 동료였던 후스의 교리를 부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1416년 4월 26일 콘스탄츠공회의

4) 그는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왕(1387~1437), 독일 왕(1410~1437), 보헤미아 왕(1419~1437), 브란덴부르크 선제후(1378~1388, 1411~1417)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1433~1437)였다.

출두하여 마지막 심문을 받았다. 성실하지 못하고 태도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자 제롬은 과거에 자신이 교회개혁정신을 부정한 것은 육체적 연약과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다시 교회 개혁의 이상을 주장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제롬은 다시 타락한 이단자로 정죄를 받고 후스와 마찬가지로 1416년 5월 30일 화형에 처해졌다. 화형을 당하기 전 그는 시편 31편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게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시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본문은 일년 전 후스가 처형을 앞두고 암송했던 동일한 말씀이었다. 보헤미아의 후스파 교회는 후스와 함께 제롬을 종교개혁 신앙으로 순교한 최초의 인물로 간주한다. 제롬의 저서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대학에서 행한 강의록과 논쟁서들, 그밖에 '보편실재에 관한 입장' (Positio de universalibus), '보편 실재에 관한 질문'(Quaestio de universalibus)이라는 2편의 논문이 있다.

교회개혁을 꿈꾸며 보헤미아 독일 폴란드 등지를 다니며 방랑의 길을 갔던 제롬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죽음을 맞았다. 그는 후스와 동일한 교회개혁의 이상을 가졌던 인물로써 위클리프의 정신적 제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